

## “ 변화는 좋으나 변질은 안된다 ”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이방의 빛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미래의 시민상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불변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성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 행진을 더욱 힘차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합쳐 추진해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은 한국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에 티를 뽑는 일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캐냄으로 자기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발전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공장을 세웠는데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환경 오염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대기오염으로 사람들이 호흡조차 힘들게 되었다면 공장 건설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보수와 변해야 산다는 진보가 팽팽하게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각층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개념은 충돌 개념보다는 상호 보충개념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다함께 헌법을 보수해야 한다. 그 헌법의 표준 하에 변화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는 보수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아래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입으로는 헌법을 인정하나 실은 반헌법적 행동을 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강단에서 읽고 성경이야기는 설교라는 틀 속에서 외치고 있으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교인수 증가를 목표로 교세 확장에 더 치중을 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와 젊은이를 위협이라는 명분만으로 변질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직선만 굽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기도 웃기도 하는 세상에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선의 방향만은 계속 하나의 꺾대인 성경만을 향해 전진하고 상승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사관과 지금은 그 끝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을 벗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발 앞에 내려놓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정해진 삶이란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눈에 들 수 있는 바른 주의 청지기로 변화시켜 달리게 함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한국장로신문 [1364호] 2013년 4월 27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asto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i Chan Yoo
Hymn .....	36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John 8:12-30 ..... Pasto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asto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 Pastor
* Hymn .....	84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b>세계 복음화</b>(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b>교회 천국화</b>(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b>문화 기독교화</b>(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서울교회 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마켓산(카자흐스탄) 스프로토마로이, 조남해, (방글라데시), 이제 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성진홍성일(필리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제훈박계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 권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야 땅, 땅, 천, 코, 카, 마이, 랑, 사무엘, 레이, 난, 쌍, 쥘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뵈도, 보디소뜨, 린뭇,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	-------------------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대한예수교 장로회</b></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font-size: 2em;">서울교회</h1>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b>SEOUL PRESBYTERIAN CHURCH</b></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담임목사(안식) 박노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p> <p>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p>
--	---

## “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 ”

### ■ 렘 8:12~22

망해 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 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찌 됴인고?” 이 질문은 이 시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격동기에 있는 유다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로이 증거 했던 하나님의 참 종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 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로 유다는 총체적인 부패 상태였고, 회개의 여지가 없는 암울한 상태였습니 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총회로부터 노회, 그리고 각 지교회 등 모두가 믿음으로만 회개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을 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어 신학과 세속화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과급을 주면서, 어떤 면으로는 회개하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왔습니 다.

### 1. 선지자의 부르짖음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라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렘 8:19). 이에 유다 백성들이 탄식하여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렘 8:20). 유다 백성들의 탄식은 어찌면 현대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조 섞인 탄식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유향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라는 탄식을 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많은 곳이었습니 다 유향은 고대 시대 고가의 향료며 치료약으로 주변의 많은 국가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만연한 영적인 병은 유향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병은 영적인 치료약으로만 치료 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절대적인 특효약이며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르앗의 치료약을 언급하면서 그곳에는 치료자인 의사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백 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명약은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그리 스도는 21세기 첨단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현 시대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과 이 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료기록부가 없어도 우리의 환부를 정확히 지적하시고 기억하시며 통증과 흔적이 없이 완전하게 고쳐 주 십니다. “어찌하여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치료가 되지 않는가?” 계속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이처럼 병든 자들이 증가하 고, 또한 병의 증상까지 심해짐의 이유는 무엇이나고 탄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사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 다.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2.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

죄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가 불분명하여 좀처럼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수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이 죄 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는 것이 죄입니다. 국가에 충성치 않음도 죄가 됩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눅 19:42).

### 맺는 말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통함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관절과 골 수를 쪼개져 혼과 영까지 증거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길르앗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에 의지하여 충성하고 또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남의 삶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순오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	시 145:17-1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6(시 28)...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	357(39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빌 2: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설 교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	그리스도의 마음... 김의창 목사
* 찬 송 Hymn .....	455(50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남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48:1 ..... 인 도 자
찬 송 .....	435(492) ..... 다 함 께
기 도 .....	윤명구 집사
성 경 .....	계 6:9-17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혼돈 속이야면 변할 것까” ... 설 교 자
* 찬 송 .....	447(448)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	김정미 권사
성 경 .....	벧전 5:1-6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본을 보이고 겸손하라”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영만박수강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찌 됨인고(렘 8:22)		
영어예배	예루살렘				<b>지난주 성구</b>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 회 소 식

### ◆ 모 임

1. 선교회장, 전도회장단 월례회 / 27일(주) 오후1시 202호
2. 제2권사회 8월 기도회 및 월례회 / 27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3. 선교위원 및 기도팀장 회의 / 27일(주) 오후3시30분 202호
4. 제1권사회 월례회 / 27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5. 전교인 1일 수련회 준비위원 모임 / 27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최용준(한의학과), 공민호(신경외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1. **영동시찰회** / 29일(화) 오전11시 묘동교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 12. 김의창 목사 소개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M.Div.  
미국 보스턴 고든콘웰 신학 Th.M.  
영국 세인트앤드류스 대학교 Ph.D.  
현) 햇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초빙교수

### ◆ 장 례

1. **故 정명분 권사**(12교구 김예환 권사의 모친, 서상근 집사의 장모) / 8월22일(화) 별세, 24일(목) 발인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81명	258명	269명	1,408명	168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8/20)

(단위 :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 20일	헌금	31,293,100	
"	특별예배비		1,000,000
"	교회학교운영비		460,000
"	교구운영비		33,020
"	선 교 비		800,000
"	구 제 비		1,350,000
"	비전2020		105,000
"	출 판 비		270,000
"	인 건 비		11,044,000
"	사무용품비		4,000
"	통 신 비		1,239,520
"	복리후생비		52,000
"	수도광열비		1,407,700
"	수선유지비		1,856,100
"	식당운영비		1,640,000
"	합 계	31,293,100	21,261,340